


불꽃놀이

글 매슈 버제스 | 그림 카티아 친 | 옮김 김지은

- 발행일_2026년 5월 20일
- 가격_18,500원
- 쪽수_52쪽
- 판형_222*273
- 분야_유아 그림책
- 제본_각양장
- ISBN 979-11-995618-5-4 77840

신나는원숭이 

전자우편 books@funny-monkey.com

전화 031-223-0214

인스타그램 @funnymonkey_books

블로그 blog.naver.com/funnymonkey_books

◎ 작품 소개

★2026년 칼데콧 메달 수상작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큰 기쁨이 담긴 책!”

★뉴욕타임스 · 뉴욕공립도서관 올해의 최우수 어린이책

★커커스리뷰, 시카고공립도서관, 퍼블리셔스위클리, 스쿨라이브러리저널 올해의 책 등

★미국 대표 기관 12곳 이상에서 '올해의 책' 선정!

그림책 『불꽃놀이』는 찌는 듯한 무더위를 뚫고 발랄하게 여름을 즐기는 자매의 하루 그린 작품입니다. 팡팡 터지는 불꽃놀이를 맞이하는 두 아이를 통해 어린이가 가진 건강한 에너지와 기쁨을 보여 줍니다. 작품 전체를 감싸는 다채로운 색채가 매력적인 이 작품은 2026년 칼데콧 메달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화가 카티아 친의 그림 사이사이 작가 매슈 버제스의 시적이면서 다정한 글이 더해져 한층 풍성한 감성을 채웁니다. 한국어판은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김지은의 섬세한 번역으로 출간되어 원작의 따뜻함을 진하게 전합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터뜨리는 우리 둘만의 파티!

무더운 여름, 어린 자매는 할머니의 심부름을 하러 길을 나섭니다. 가는 길마다 뜨거운 태양이 도시의 열기를 달구지만 두 아이는 흥겨운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도시에 사는 여느 아이들이 그렇듯 두 아이도 길에서 만난 놀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줄기를 뿜어내는 길거리 소화전, 공원의 분수대, 거리의 멧쟁이 음악가, 달콤한 수박,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살사 음악까지 모두 자매의 무더위를 식혀 주는 요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아이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을 위해 나란히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뒤, 다리 너머로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두 아이는 하늘을 가득 채운 화려한 불꽃을 가슴에 가득 담으며 뜨거운 여름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반짝이는 여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그림책

아이들에게 여름은 놀이로 더 뜨거워지는 계절입니다. 하루하루 신나는 추억을 쌓으며 여름을 보내고 나면 훌쩍 자라지요. 설렘과 기쁨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여름의 태양만큼이나 반짝입니다. 그림책 속 자매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흥겨움을 여과 없이 보여 줍니다. 신나는 마음이 커질 때마다 아이들을 둘러싼 색채는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여름의 아침, 점심, 저녁을 묘사한 색감도 이 작품에서 꼭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반짝거리는 아침 햇살은 아이들의 얼굴처럼 맑고, 소화전 물줄기는 한낮의 열기와 대비를 이뤄 가슴까지 시원해집니다. 열기가 물러간 자리에 드리워진 붉은 초저녁의 하늘은 화려한 불꽃놀이를 더욱 기대하게 하지요.

까만 하늘 위로 팡팡 터지는 색색의 불꽃은 독자를 환상의 세계로 데리고 갑니다. 불꽃이 가장 크게 터지는 절정의 순간은 위로 펼쳐지는 확장 페이지로 제작해 커다란 포스터를 보듯 벽찬 감동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끝에는 시원하면서도 보드라운 감촉을 지닌 여름이 불처럼 기분 좋은 여운을 남깁니다.

◎ 추천의 글

가슴이 벅차오를 때 우리는 “터질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터질 것 같은 기분, 그때를 어린이는 영원히 간직합니다. 순간이 영원과 같았던 놀라운 하루를 기록한 이 책은 경이로움 속에 성장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려 줍니다. 크게 기뻐한 사람이 더 크게 자랍니다. 이 책과 함께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큰 기쁨을 누리 보세요.

김지은_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역동적인 의성어들로 표현해 소리와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어 생생한 여름을 깨우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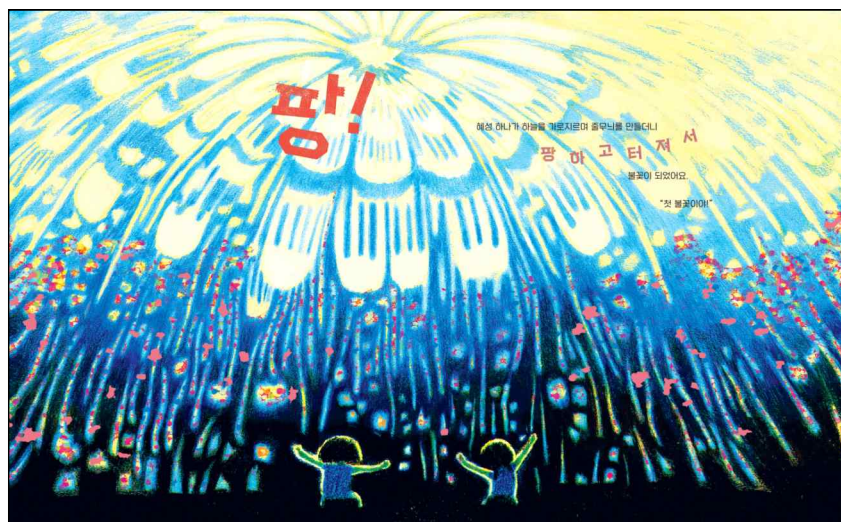
_퍼블리셔스위클리

“여름의 모든 것을 빛나게 하는 책.”_커커스 리뷰

“아이들이 순수하게 세상을 경험하는 기쁨의 축제. 다정하고 매력적인 책.”_북리스트

“반드시 소리 내 읽어야 할 그림책. 여름의 기억을 몰입감 있게 표현한 책.”_흔 북

◎ 본문 미리 보기



◎ 작가 소개

글 매슈 버제스

시인이자 교육자이며 작가입니다. 미국 브루클린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문예 창작을 가르치고 있고, 20년 넘게 뉴욕공립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처음으로 쓴 어린이책 『엄청나게 작은: E.E 커밍스의 이야기』로 어린이도서관조합과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주목할 만한 어린이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키스 해링의 낙서장』 『사랑하는 나의 ㅎㅎ에게』 『꼬마곰과 달』 등에 글을 썼습니다.

그림 카티아 친

대중 연설가이자 그림책 작가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 아트 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ACCD)을 졸업한 뒤에 뉴욕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습니다. 『소년과 재규어』로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슈나이더 패밀리 북 어워드를 받았고, 『불꽃놀이』로 칼데콧 메달상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안녕, 나의 꼬맹이』 『꼬마곰과 달』 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옮김 김지은

좋은 어린이책을 읽고 소개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에서 학생들과 그림책, 아동청소년문학을 연구합니다. 『어린이는 멀리 간다』 『거짓말하는 어른』 『어린이, 세 번째 사람』을 썼고, 『홀라홀라 추추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삶의 모든 색』 『도시에 물이 차올라요』 『할머니의 뜰에서』 『기억나요?』 『난 널 먹을 거야』 『길이 내게 말했어』 등 여러 작품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